보광사 사태 1심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현중·황운 스님 소유권 인정… 선학원측 상고 준비

폭력사태로 번졌던 (재)선학원 소속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태에 대한 2심 판결이 1심을 뒤집고 현중 스님과 황운 스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월 9일 판결문을 통해 "현중 스님이 서울 보광사 및 충북불교문화회관의 창건주 지위를, 황운 스님이 부상 보광사에 대한 창건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사찰을 사고사찰로 규정하고 재산관리인을 파견할 것을 결정한 2004년 12월 17일자 선학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창건주의 권한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창건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단의 분원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중 스님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대표 김동건)의 정인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내 기구의 의사결정이 그 구성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이 조직규정 기타 종교단체 규범의 합리적 해석에 근거를 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학원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학원 보광사 사태는 2004년 9월 前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입적한 후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 충북불교문화회관의 창건주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 보광사 주지였던 현중 스님측과 현중 스님의 창건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남산문도회측은 2004년 12월 31일과 2005년 1월,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동방불교大 신입생 모집

범패·승가학과는 예비승려 이상만 입학 가능

태고종 동방불교대가 2월 12일까지 200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를 비롯해 승가학과, 범패학과 등 2년제와 불교미술학과(3년제)로 나뉘어 전형을 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필기 및 실기, 면접고사를 통해 결정한다.

지원자격은 불교학과와 불교미술학과는 출·재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범패 및 승가학과는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자에 한해서만 입학 가능하다.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교육 제도에 의거해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반드시 동방불교대를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구족계 수지 자격은 물론 승려증이 발급된다.(02)745-2030

김주일 기자

마곡사 사태 진각 스님 제적

마곡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진각 스님이 제적, 장곡 스님이 공권정지 3년의 판결을 받았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1월 23일 제42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진각 스님은 말사 주지 품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다. 한편, 아동보호시설인 '둥지청소년의집' 공금횡령 및 아동 학대 혐의로 회부된 지공 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보류했다.

진각 스님과 장곡 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각각 멸빈과 공권정지 6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실 개소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첫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하고, 교구사무실을 개소한다.

조계종은 1월 31일 오후 3시 제1차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후 4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직할교구 사무실 개소식을 봉행한다.

종회에서는 ▲교구종회 부의장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직할교구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대중결계와 포살 실시 안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직할교구 사무실은 직할교구 운영의 효율과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원상담실로 운영되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공간에 설치된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중결계·포살법회 역점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올 사업계획 발표

취임 3년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올 한해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 계획을 밝혔다.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연 지관 스님은 "올 한해 대중 결계와 포살법회를 정례화하고 승가의 수행종풍을 진작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을 종단 슬로건으로 내건 지관 스님은 올해 새로운 사업 계획 보다는 지난 2006년 11월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던 4대 역점과제의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부서별 22개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급 승가고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불교 대응 방안 추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센터 운영, 스리랑카복지타운 준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지관 스님은 "이명박 당선자의 종교가 다르다고 우려하지는 않으며, 대운하 건립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와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진각종과 오랜 논란을 빚어 온 군승 파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석에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조계종의 4대 역점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대중 결계와 포살 법회=대중 결계와 정기 포살법회 실시는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직후부터 제시했던 종단 중점 사업이다. 지관 스님은 "결계와 포살은 내면적 자기 성찰, 반성, 경책, 탁마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종단은 올해 하안거부터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결계와 포살법회를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헌, 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결계는 종단 소속 스님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종단은 이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발간할 방침이다. 포살법회는 한 달에 두 번, 음력 그믐과 보름에 대중이 모여 자기가 받은 계법을 외우고 보름 동안 계를 어긴 점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다.

한편, 조계종은 종지종풍 선양을 위해 종조(宗祖) 도의국사 수법기념비를 중국 강서성 홍주 우민사에 세운데 이어 광동성 남화선사에 순례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다. 수법기념비 제막식은 오는 4월 경 열릴 예정이다.

▲한국불교 중흥 기반 마련=현재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조계사 시민선원 개원, 6월 국제템플스테이센터(서울 양평구 신정동) 건립 착공, 8월에는 전법회관(서울 종로구 견지동) 완공, 11월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 완공, 11월 전통불교문화센터(충남 공주 마곡사 인근) 개원 등의 불사가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4대 역점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통불교문화센터 등 불사 추진
감사기능 확대 종단 청정성 향상
어린이 눈높이 불교콘텐츠 개발

총 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는 전통불교문화센터는 종단의 교육과 수련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산실로, 전법회관은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와 기관이 입주하는 전법의 거점으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국제선센터 등은 국내·외인들에게 템플스테이와 선문화를 알려나가는 장(長)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통사상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비롯한 한국 고승 어록과 법어집을 영역해 세계에 알리는 한편, <삼국유사> 일부를 영역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중원융 살림 전통 계승 발전=조계종은 원융살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종무행정 권한을 교구본사에 위임해 종단 운영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종단 중앙종무기관의 세입 세출 예결산을 종단 홈페이지와 종보(宗報)를 통해 공개하고, 교구본사 주지 선거 시 공명선거 서약 의무화와 호법·감사 기능을 확대해 종단의 청정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지난 한 해 공주 마곡사와 제주 관음사 사태를 통해 불거진 주지 선거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前 종무원장 법장 스님이 추진했던 승가 노후복지 제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지관 스님은 "당장 실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올해 승가복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현 단계의 승가복지 구상은 종무원이 기획총괄하되,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체계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앙종무의 종도 중심 평가시스템 마련,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의 직무와 생활에 맞는 청규 제정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법 봉사 역할 확대='종단의 전법 봉사 역할 활대' 분야는 지관 스님이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어린이·청소년 포교사업의 지속적인 실천과 공익기부재단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팀을 설립하고 어린이전문사이트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는 불교 콘텐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종단 내 공익기부재단을 설립한다. 향후 3년 내에 7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어려운 이웃들과 공익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실문전담자를 배치해 설립과 운영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이어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센터를 설립해 불자 노인보호사를 체계적으로 배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수령 기자

불광 불교대학·대학원(2년제) 신입생 모집

불광불교대학·대학원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 신행과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불광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입니다.

불광불교대학(2년제 4학기)

교과과정
- 1학년 1학기 : 근본교리, 불교문화, 불교 경전의 이해, 바라밀수행법
- 1학년 2학기 : 대승불교, 계율론, 바라밀신행과 불광운동
- 2학년 1학기 : 경전 강독, 비교종교, 포교와 전법, 불교사
- 2학년 2학기 : 선불교, 불교사회복지, 보현행원품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 12시
- 저녁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지원자격
1.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2. 불교기본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1학기내에 수료하여야 합니다.)

특 전
1.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부여

모/집/일/정

◆ 모집기간
1월 1일 ~ 2월 29일

◆ 입학식
3월 2일 (일요일)

◆ 등록금(학기당)
대학 20만원,
대학원 25만원

불광사 불교대학원(2년제 4학기)

교과과정
반야·중관사상, 유식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대승기신론, 선어록 강독, 초기불교,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 12시
- 저녁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지원자격
1. 대한불교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특 전
1. 불광전문포교사 자격 부여
2.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 교수단 등용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83번지 불광교육원 02)417-2551 www.bulkwangsa.org